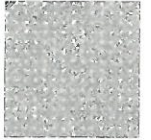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페이지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제44차 세계성체대회기념 유리화 | 이남규 루카. 280x180, 레드케임 기법, 1989년, 명동대성당

입당 송 | 시편 81(80),17

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참밀을 먹이고, 바위틈의 석청으로 배부르게 하였노라.

제1독서 | 신명 8,2-3.14L-16ㄱ

화답 송 | 시편 147(146-147),12-13.14-15.19-20ㄱL(◎ 12ㄱ)

-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
-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

제2독서 | 1코린 10,16-17

부속가 | <성체송가 21-24>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환호송 | 요한 6,51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 요한 6,51-58

영성체송 | 요한 6,5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은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특별히 박사 과정 동안 제가 받았던 느낌은 지식이 쌓여간다기보다 하루하루 제 자신이 소진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온종일 쓴 논문의 양이 성에 차지 않거나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야 할지 막혀버리면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하고 숨이 막혔답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이 과정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다는 막막함이었어요. 한마디로 그 시기의 저는 하루하루 불행하고 불안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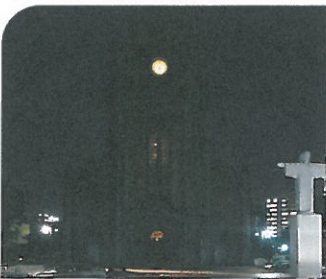
그 과정을 거쳐 공부를 마치게 됐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제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저를 지탱해 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기도와 신자분들의 응원, 함께 공부한 동료들의 마음까지 수많은 도움이 있었답니다. 만약 이러한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공부를 마칠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살까요? 당연히 우리는 밥을 먹고 살죠. 하지만 그 밥은 단순히 쌀로 지은 음식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농부들의 땀과 정성이 깃들여 있고, 벼가 자라도록 햇빛을 비추시고 때맞추어 비를 내려 주신 하느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쌀을 매만지며 깨끗이 씻고 불에 앉힌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스며들어 있지요. 우리는 한

그릇의 밥으로 나날이 생명을 이어 가고 있지만 그것은 한 그릇의 밥이 아니라, 한 그릇의 사랑과 정성이예요.

결정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특별히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죄로 죽어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의 밥이 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미사 안에서 주님의 몸을 모시는 사람은 다시 살게 되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성체성사의 신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조각의 밀떡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지, 한 잔의 포도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지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사랑을 먹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하면서 산다는 것이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51)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빵에 비유하신 것은 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의 빵을 먹으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느님과 교감하며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를 마주한 스테인드글라스는 미사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몸과 피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줍니다. 세상은 고통이 아닌 생명과 환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마카엘 | 루크글라스



그래서 저의 뒷배는요

평범한 공무원 가정에서 자란 평범했던 중3 둘째 아들이 갑자기 연기자가 되겠다고 예고 진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께서선 조금 당황하신 듯했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한번 해보라며 연기 학원 등록금 두 달 치를 어렵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거금이었던 학원비가 무색하게 시험에 떨어지고 예고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이번 주보에 글을 쓰게 된 계기로 한번 여쭙어봐야겠습니다. 그때 실망하시진 않으셨는지, 걱정은 안 하셨는지 말입니다. 그저 평소처럼 답담하셨거든요.

방송계나 영화계에 인맥 하나 없는 가정의 둘째 녀석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연기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사춘기 시절에도 고3 수험생 시절에도 주일미사는 빠짐이 없었던 터라 다른 걱정은 안 하셨겠지만, 한껏 멋을 내고 학원으로 가는 제 모습을 보시면서 걱정반 기대 반으로 기도에 기도를 더 해주셨겠지요. 가만히 돌이켜 보면 그 기도 덕분에 당장의 예고 진학 대신 몇 년 뒤, 제 인생 터닝포인트를 주님이 선물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평범하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무원이 되겠다고 경영학과에 진학했고, 학교를 잘 다니나 싶더니 또 무슨 바람인지 연기자가 되겠다고 했으니까요. 시쳇말로 뻘도 없고 연출도 없는 경영학과 학생이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일이 다르게 굴러갑니다. '클래식'이라는 영화에 출연하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쉬지 않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뭐 하시냐?', '가족 중에 피디나 기획사 연출 있느냐?', '누구에게 잘 보였느냐?' 같은 질문들.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셨겠죠.



이기우 요셉 | 배우

자칫 불쾌할 수도 있는 이런 질문들은 저희 가족에게는 행복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치 해 줄 답이 있는 듯 부모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질문에 아버지께서 "우리 집엔 주님이 계시다."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는 늘 주님이 계시고 저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행하려 하는지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를 살피셨음을 가족 모두는 항상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느끼고 기도로 더 다가가시는 부모님을 항상 보곤 했습니다. 겉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보살펴 주는 일 또는 그런 존재를 뒷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세상 가장 든든한 뒷배. 바로 주님이 계시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을 욕보이며 애써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주님을 외면해 가며 고개 숙일 일도 없는 든든한 뒷배. 대가 없이 오로지 저희만을 바라보시고 저희의 행복을 바라시는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심을 알기에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가슴 벅찬 감사의 마음을 안고 더 큰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컷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사회교리'

"인간 존엄성은 알고리즘으로 재현할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2023년 3월 '미네르바 대화' 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대속!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등등의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래 전례 안에서 듣고, 또 기도 중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로마 5,9) 이런 내용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 안에서 하신 일이니, 하느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최대한 ‘알아주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신학이 하는 일도 이것이고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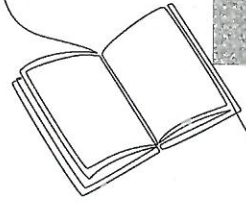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셨다는 말, 즉 ‘대속’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계속 있었습니다. 성 안셀모, 성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러했고, 현대에도 이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인간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의식도 문화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각 시대와 문화마다 저마다의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론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톨릭교회가 한 가지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를 ‘대리하는 속죄’이지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A가 B를 대체할 경우, B는 더 이상 권리가 없지만, 대리할 경우에는 B의 자유와 권리가 보존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리하셔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하느님과의 화해,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품위를 얻어 주셨는데, 그 품위에 맞게 생활할 우리의 의무와 권리, 자유를 보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는 생각은 예수님의 대속을 ‘대리’가 아닌 ‘대체’로 알아들은 것이지요. 이런 태도를 사도 바오로는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갈라 6,7)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에 부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에게 걸맞게, 여러분 사이에서는 불륜이나 온갖 더러움이나 탐욕은 입에 올리는 일조차 없어야 합니다.”(에페 5,3) 그리스도인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1베드 2,9)으로서 그에 걸맞은 처신을 하면서 살도록 요청받습니다.(1베드 2,9-12 참조)

- 다음 주에 계속 -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필리포스의 선교와 메시아 (사도 8,26-40)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사도행전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필리포스에 대한 또 다른 일화를 전해줍니다. 이 일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말씀을 성취하셨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지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필리포스는 천사의 인도로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내시는 이사야서의 53,7-8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 52,13-53, 12의 '고통받는 주님의 종'에 대해 노래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을 예고한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강하게 바라던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는 영광으로 가득 차 이 세상에 왕으로 등극하여,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가 제시하는 메시아는 영광스럽게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대신 고난과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의 죄를 속죄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를 으스스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짚어지리

라."(이사 53,10-11)

영광의 메시아를 꿈꾸던 유대인들은 속죄를 위해 이루어진 십자가상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속죄의 행위로 받아들여졌고, 그분을 통해 용서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내시도 필리포스를 통해 그러한 이사야 예언서의 뜻을 제대로 파악했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 세례를 청합니다. 이때 내시는 필리포스에게 세례를 받기 위한 신앙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세례 때 사람들은 같은 신앙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르 10,45)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위대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핵심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내 이웃을 위해 희생과 사랑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꿈꾸며, 다른 이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이비 종교의 사상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스승이 오시어 당신을 부르십니다 (요한 1,28)



황원옥 마리아에스텔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수녀·가톨릭건축사사무소 대표



스승예수의 제자 수녀회 성당 - 제단벽면 성당 외부 벽면

제가 사는 수녀원 건물에는 큰 나무의 이미지가 두 군데에 있습니다. 수도 생활의 중심인 성당 내부 제단 벽면에 하나, 그리고 바로 맞닿은 외부 벽면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위한 기도와 보속의 삶으로 큰 나무에 자양분을 주는 뿌리의 역할을 하며 묵묵히 살고자 하는 사명과 선교의 의지를 매일 새롭게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단 벽면의 큰 나무 위에는 수난하고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강복해 주시는 스승 예수님상이 있고, 외부 벽면의 큰 나무 아래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고심하던 나

타나엘의 모습이 곧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스승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재비를 차리고서, 혹여 흔들리고 넘어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항구한 응답으로 따르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모든 여건과 건축법을 바탕으로 하여 비어있는 공간을 얼마만큼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빈 공간은 물리적으로 비어있다는 뜻이지만, 또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잠시라도 생각이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빈 공간은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을 만나고 어디에서든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성당이나 수도회든 건축한 지 30여 년이 지나면 처음 상황에 맞추어 살던 건물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거나 신축합니다. 초창기에는 그리 좁지 않았을 공간들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변화, 회원의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필요로 하는 요구조건들이 달라지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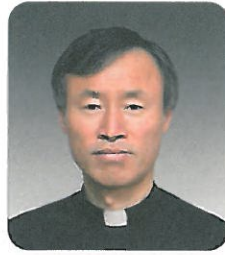
그 이유입니다. 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법이 요구하는 대로 보완해야 할 것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수도원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도 감내하고 희생으로 봉헌했던 생활 형태는 갈수록 좀 더 크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건축물이 그렇지만 특히 수도원 건물은 가능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도록 지어야 합니다. 그 어떤 기교나 과도한 편리함보다는 조금 부족한 듯해도 단순함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에 아파하는 지구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공동의 집인 지구를 살리고 보존하며 지속 가능한 상태로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과제를 실천하는 것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꼭간을 마련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썩어 없어질 것들을 쌓아두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물리적인 건축에 앞서 우리 자신을 보다 먼저 바로 세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998년 서품

사제수품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태석(아우구스티노) 신부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요한 13,15)



이준호(미카엘) 신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 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골로 2,6)



인완식(스테파노) 신부
인간이 무엇이기 주여 마음쓰시옵고 그 종락 무엇이기 생각해 주시 나이하. (시편 143,3)



신희준(루도비코) 신부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사 12,2)



김희철(요셉) 신부
그들은 곧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라갔다. (마태 4,22)



전민배(미카엘) 신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골리 4,13)



김정환(프란치스코) 신부
내가 네 힘이 되어 주겠다. (탈출 3,12)



이상범(시메온) 신부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1테살 5,16-18)



이태규(바오로) 신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라라.
(요한 21,17,19)



조영관(에릭) 신부
네 마음을 다 기울이고 네 정성을 다 바치고 네 힘을 다 쏟아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신명 6,5 : 마태 22,37)



이형기(베르나르도) 신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이사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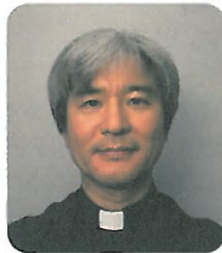
이계철(라파엘) 신부
찾게는 이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마르 12,2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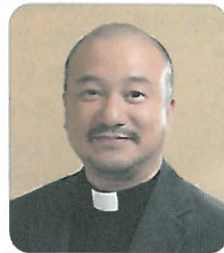
김준규(스테파노) 신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1코린 1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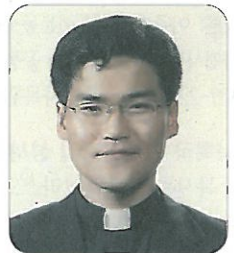
이상수(시몬) 신부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루카 5,5)



김재화(시몬) 신부
아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 3,17)



유환민(마르첼리노) 신부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 나의 길을 비추는 빛이오이다.
(시편 118,105)



김성권(세례자요한) 신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21,17)

오늘(6월 11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체성사의 신비를 기리는 날입니다.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김우중 신부	흑석동 본당 부주임	정직
한상현 신부	대기	면직(2023년 4월 25일부)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영명 축일 미사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의 영명 축일 미사가 6월 29일(목) 오전 11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교구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있습니다.

6월 24일(토)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9년 6월 15일 윤형중 마태오 신부(76세)
- 2007년 6월 12일 장덕범 바오로 신부(84세)
- 2008년 6월 13일 나상조 아우구스티노 신부(87세)
- 2010년 6월 15일 조순창 가시미로 신부(77세)
- 2010년 6월 17일 박대웅 세례자요한 신부(57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목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구청 알림

2023년 월요 성경통독

때, 곳: 1월2일~12월25일 매주(월) 13시~16시(90분 강의+미사) 온라인 동시 강의,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회비: 연회비 12만원 / 문의: 010-7586-5425(문자)

가톨릭 시니어 후원회 6월 월례미사

성가와 함께하는 찬양 미사
때, 곳: 6월13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사 주례: 노인사목팀 담당사제
문의: 02)727-2385, 6 노인사목팀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동인회 특강

주제: 진루센(金魯賢, 1916~2013) 주교와 중국천주교회
강사: 신의식(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아시아천주교사연구회 회장)
때: 6월15일(목) 19시~20시30분(90분)
곳: 종로성당 3층 강당 / 문의: 010-6764-7004

제51차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대상: 하느님의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해 함께 하고자 하는 전 신자 및 후원회원
때, 곳: 6월15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명동)
주례 및 강론: 이준혁 신부(이문동성당 보좌),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공동집전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2023년 사목국 성서못자리 성서특강

주제: 요한 묵시록의 예수 그리스도
때: 6월26일(월) 10시30분~15시20분
곳: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강의실(혜화동)
강사: 허규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접수: 5월17일(수) 10시부터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선착순 400명) / 회비: 4만원(중식 제공)
문의: 02)727-2379 사목국 성서못자리

서울대교구 온라인 예비신자 교리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내용 참조 / 신청: 본당 사무실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제50회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 '한국-바티칸 외교 수립 60주년' 기념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전관
전시일정: 6월14일(수)~22일(목)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6월26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전승미 율리안나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순교자현양회 합창단원 모집

대상: 성가에 재능이 있으신 62세이하 교우(남성, 부부, 성가대 경험자 우대), 매일 2회 평일 오전미사 참여 가능하신 분 / 활동: 순교자현양회 시복시성 기원미사, 성가봉헌, 정기연주회 등
연습: 매주(월) 19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문의: 010-3898-3408 단장, 02)727-2527 사무국

생명위원회

- 1) 2023년 청년 피정
주제: 성 · 생명 · 사랑의 길
대상: 만 20~39세 미혼 남녀
때, 곳: 7월1일(금) 13시30분~2일(월) 16시(1박2일), 콘벤 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피정의 집(용산구 한남대로 90)
회비: 5만원(전 일정) / 6월21일(수)까지 접수
주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 한국틴스타
문의(신청): 02)727-2351 생명위원회
- 2)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6월13일 13시30분~16시30분 매일 두번째(화)
곳: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슬픔 속 희망찾기' 6월 유가족 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6월17일 매일 세번째(토) 10시(목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집전: 차바우나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복讎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72차 미사 6월13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본당: 평양교구 신의주본당, 마전동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복讎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 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명동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 1) 영성심리아카데미
주제: 중독이란 무엇인가 / 회비 없음
강사: 엄태진 교수(한국음주문화연구소 연구센터 전문상담사)
때: 6월14일 ~ 6월21일 (수) 14시~15시30분
곳: 가톨릭회관 205-3호 / 문의: 02)727-2126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 참조
-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선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때: 6월23일~24일, 7월21일~22일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3박4일)
 회비: 75만원·115만원 / 문의: 010-3645-9028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두 성심의 일치 묵상 피정(마리아학교)
 때: 6월19일(월) 9시30분~13시 / 강의, 미사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문의: 010-2724-4819

4지구(종로·성북) 성령기도회 감사찬양 피정
 강사: 천동욱 / 문의: 010-3321-1863
 때, 곳: 6월16일(금) 13시~16시, 길음동성당

6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때: 6월28일(수) 19시30분 / 문의: 010-7197-1390
 곳: 명동대성당 상설고해소 B401호 / 대상: 남녀 청년

예수전교회 치유대피정 / 문의: 010-8898-6770
 때: 6월17일 오후 1시~5시 / 강사: 김협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담당: 김인성 신부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강사: 박정우 신부, 김재덕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정진숙, 손현희 팀장
 때, 곳: 6월17일(토)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추천, 황성)
 문의: 010-3340-0201, 010-9715-1203 (개인 피정)

효소단식	6월22일(목)~25일(일), 7월20일(목)~23일(일)
성경완독	7월7일(금)~15일(토), 8월11일(금)~19일(토)

우이동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대침묵 피정	7월27일~30일, 8월10일~13일(3박4일)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개인 피정·위탁 피정	별도 문의

교구별 성지순례·왜관수도원 전례·탐방

출발: 서울 명동(대형 버스) /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들(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순례	7월1일~5일(울릉도·독도·왜관), 8월26일~29일(왜관·부산 8곳·마산 6곳), 9월9일~11일(왜관·대구 17곳)
수도원 외	7월22일~24일(춘천 15곳)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17차	7월21일(금)~29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18차	8월11일(금)~19일(토)	
제119차	9월8일(금)~16일(토)	

예수성심 위로의전교회 모임 / 문의: 010-3275-8707
 때, 곳: 매월 첫번째(금),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미사: 오전 10시30분~낮 12시 / 본회는 예수성심을 전파하고 가난한 성당과 공소 및 국내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영적 물적 후원회입니다

성체 성혈 대축일 대피정

주제: 내 사랑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강사: 손희송 주교(총대리), 조성풍 신부(사목국장)
 미사집전: 총대리 주교와 지도사제단 / 회비: 3천원
 때, 곳: 6월12일(월) 13시~17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문의: 02)773-3030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루하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쇄신봉사회)

찬양을 통한 치유회복기도회에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루하
 때: 매주(금) 19시30분
 곳: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관악구 조원동) 3층
 문의: 02)866-6345 / 인스타그램: @ruah.fiat

제주 성 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들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6월18일~20일·6월23일~25일·7월22일~24일·7월28일~30일·8월1일~3일·8월19일~21일·8월27일~29일, 여름특별 피정(우도) 8월5일~8일·8월11일~14일, 추라도성지 포함 자연순례 7월1일~4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6월23일(금)~25일(일)	김권일 신부(청주교구)
7월14일(금)~16일(일)	정남진 신부(원주교구)
8월18일(금)~20일(일)	민범식 신부(서울대교구)
9월15일(금)~17일(일)	배영호 신부(수원교구)
10월20일(금)~22일(일)	전현호 신부(대구대교구)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6월23일~25일, 8월26일~28일
여름특별 피정 (우도 자유 일정 포함)	7월29일~31일, 8월4일~6일, 8월9일~12일
성지순례 (추라도성지 포함)	6월17일~20일, 9월10일~13일, 10월7일~10일, 10월15일~18일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차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성경학교	(화)	13시~15시30분	미사 없음

교육

수제 목주 조각 기초부터 완성까지

카페: cafe.naver.com/cmc04
 문의: 010-5234-5044 가톨릭목공예

커피비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7월11일~25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2023년 국악성가 캠프 참가자 모집

때, 곳: 8월25일~27일, 전주 평화의 전당
 대상: 성가대, 일반신자 / 접수: 입금 선착순 150명
 회비: 25만원+교통비 5만원 / 문의: 02)588-2004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상반기 금요영성특강

주제: 성경으로 배우는 상처와 치유 / 강사: 이나미 교수
 때, 곳: 6월16일·6월23일·6월30일 매주(금) 16시~17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B1 명례방 / 문의: 02)3147-2402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신·편입생 2차 모집

사회복지학 석사과정(4학기), 2급 자격증 취득, 1급 자격증 응시 자격 취득 /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중독 포함), 노인복지학과(장기요양 포함), 정신건강복지학과(발달장애 포함)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반포) / 면접: 미정
 접수: 6월19일(월)~7월2일(일)
 문의: 02)3147-8781 (<https://welfare.catholic.ac.kr>)

성심CPE(임상사목교육)센터 교육생 모집

때: 9시~17시(16주간, 120시간) / 회비: 80만원(선착순 8명)
 8월24일~12월14일 (목) / 대면 용산 010-2883-5501
 8월23일~12월6일 (수) / 대면 부천 010-5303-1956

성바로수도회 말씀학교 무료 강좌

곳: 성바로수도회(강북구 송중동) / 미사 있음

매주(화)	예언서 10시~12시30분 / 010-9333-6260 개강: 9월5일, 북카페 레벤(논현동, 전철 7호선 논현역 1번 출구 180미터) / 총45주
매주(목)	마르코복음 강좌(예수님 수의와 함께) 10시~12시30분 / 010-6287-9753 성서 입문 14시~16시30분 / 010-6293-2060

예수회센터 여름 특강

7월 개강, 각 5~6주 과정 / 이메일과 문자로 동영상 발송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월)	의식(양식)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오면 신부
(화)	칼 융의 심리유형론과 MBTI	김정택 신부
(수)	육망,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門)	유성도 신부
(목)	가톨릭 사회교리의 원리와 핵심 이슈들	전주희 수사
(금)	육화의 영성	손우배 신부
(금)	신약성경과 영성생활-치유에 대한 오해와 성서학적 진실	임숙희 박사

에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서울대학교 36기 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때, 곳: 7월2일~30일 매주(일) 13시30분~18시30분
(5주간, 구의동성당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505-503-7080(jsyeom@hanmail.net)

서강대학교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영성 강의'
주제: 모리아 산을 향하여-이사악의 희생제사
강의·미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 회비 없음
때: 6월12일(월) 14시~16시 / 문의: 02)705-4711
곳: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시스띠나 시니어여성합창단원 모집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곳: 시스띠나 음악원(주최, 신촌) / 문의: 010-9842-8818

명동대성당 가톨릭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대~40대 후반 여성 교우
때: 6월25일 13시 / 문의: 010-6303-1365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6월15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6월15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살레시오와 꿈 월례미사
때: 6월12일(월) 10시30분 / 지도: 유명일 신부
곳: 가톨릭회관 2층 205-3호 / 문의: 02)828-3522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열린미사
때, 곳: 6월17일(토) 16시, 골롬반 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 문의: 02)953-0613

파티마성모님발현106주년 기념미사
내용: 썰기도,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때, 곳: 6월13일(화)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7층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가전·생활용품을 기증 받음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도박·인터넷 게임 등) 중점
치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하늘의
문 성당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30년(추가 30년 가능) /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전문 심리상담	개인심리치료, 가족심리치료(정서불안·우울· 분노·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종합심리검사
사목상담	성격, 관계, 정서(불안·우울·단절감) 등 심리적 고통에 관한 상담(1회기 1만원·경 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 한함)

꼬메스심리상담소 / 문의: 010-3201-0520
신심 좋은 전문상담사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
드립니다 / 전화, PC(Zoom), 대면상담 모두 가능

제주도 관광
제주대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지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남녀 요양보호사 / 주4시간, 기숙사 가능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서울) 사제식당 직원 모집
분야: 영양팀(계약직) 0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채용시까지 접수
문의: 02)740-9707, 8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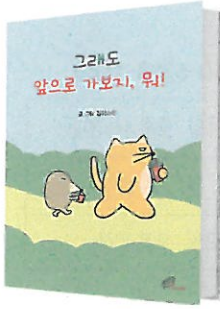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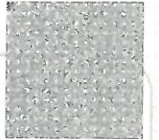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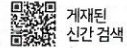
지암2동성당 관리인 모집 / 문의: 02)444-8444
대상: 세례받은 신자로 실제 업무 가능하신 분
업무: 본당 시설물 관리, 영선, 미화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방문·우편(우 05106, 서울시 광진구 독성
로58길81) 및 이메일(kcleel115@seoul.catholic.kr) 접수

수서동성당 관리인 모집
분야: 계약직 관리인(방호원) 1명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설비·소방·가스 소지자 우대)
업무: 시설물 관리, 미화 영선, 기타 방호 업무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6월24일(토)까지 방문·우편(우 06352,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199) 및 이메일(john24@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연락) / 문의: 02)2226-0231, 2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성북구) 주방 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
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6월25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특별시 중
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
(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이메일 문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6월18일(일)	본원	010-9816-0072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umjesupassio@gmail.com)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티업오신 마리아 성심수녀회	6월18일(일) 14시~16시	가톨릭회관 311호	010-2724-4819
한국외방선교회	7월2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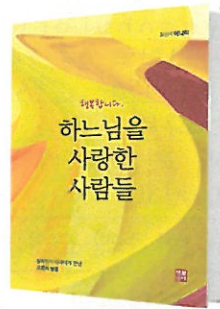


신간

그래도
앞으로 가보지, 뭐!

김미소진 지음
바오로딸 | 212쪽 | 1만3천원
문의: 02)944-0944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그림으로 위로를 건네는 말씀 묵상 에세이다.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은 소망과 의지로 충실하게 달려왔지만, 불확실과 불안의 얼굴만 내보이는 현실 앞에서 느꼈던 좌절, 이를 극복해 나간 해법과 발견하게 된 선물들을 5부로 나누어 풀어낸다.



신간

행복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들

이나미 지음
생활성서사 | 280쪽 | 1만7천원
문의: 02)945-5987

정신 건강 의학과 전문의이자 용 분석 전문가인 저자가 성인과 현자들의 이야기를 분석 심리학적 관점으로 풀어낸 책이다. 신앙과 삶에 관한 깊은 묵상과 지혜에, 통렬한 자기반성과 현대 문명에 대한 회고를 더해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참자기'를 찾는 여정에 투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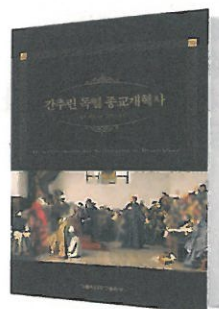


신간

안락사, 죽음과
그 밖의 것들

아드리아노 페시나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143쪽 | 1만3천원
문의: 02)740-9718

안락사, 죽음에 관한 이 시대의 문제는 오늘날 과학 기술과 그 기술의 양면적 권력이라는 또 다른 문제 안에서 제기된다. 이 책은 생명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이성의 불안한 탐구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의 환경을 조성하며 권리와 의무, 자유와 자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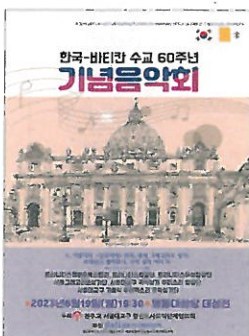


신간

간추린
독일 종교개혁사

롤프 데콧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271쪽 | 1만5천원
문의: 02)740-9718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한다. 그 출발점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며, 여기에는 신학적 측면도 고려되었다. 이 책은 무엇보다 '개혁'과 '쇄신'이라는 두 중심축을 염두에 두고 종교개혁의 전제, 정치적 상황과 그에 따른 결과를 정리한다.



음악회

한국-바티칸 수교 60주년
기념 음악회

때: 6월 19일(월) 19시 30분~21시
곳: 명동대성당 / 모든 신자 무료
문의: 02)777-2013 서울평단협 사무국

서울평단협에서는 한국-바티칸 수교 60주년 기념 음악회를 6월 19일(월) 19시 30분, 명동대성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 음악회는 서울평단협 소속회원 성음악단체의 공연으로 꾸며지며, A. 비발디 <글로리아>, 중세 그레고리오 성가, 르네상스 시대 합창곡, 국악 성가곡 등 여러 곡이 연주된다.



성가제

제22회
cpbc 창작성가제
참가자 모집

분야: 보컬 부문, 창작곡 부문, 보컬과 창작곡 부문
접수: (창작곡 부문) 6월 12일(월)~25일(주일)
(보컬 부문-보컬과 창작곡 부문) 7월 17일(월)~30일(주일)
문의: 02)270-2633

카카오톡 오픈채팅 '#창작성가제'

"노래를 잘 부른다면? 작곡할 수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본격 오디션! 성가를 통해 찬양하고 싶은 분은 지금 바로 도전! 창작곡 부문은 6월 12일(월)~25일(주일)까지, 보컬 부문, 보컬과 창작곡 부문은 7월 17일(월)~30일(주일)까지 접수한다.

제2284(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류시창 베드로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 : 6월 25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신부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9시, 11시 미사 후 전신자 음식 나눔
 잔치가 있습니다.

◎ 박병훈 예로니모(예수회) 사제 서품 및 첫미사
 서품식 : 6월 28일(수) 오후 2시 / 명동성당
 첫미사 : 7월 2일(주일) 11시 미사 / 연희동성당
 ※ 첫미사 후 전신자 음식 나눔 잔치가 있습니다.

◎ 주임신부님과(6월 29일, 베드로 축일)
 새신부님의(6월 28일, 사제서품)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영적 예물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 외에 개인별 봉헌은 성당 입구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성총구역 족구대회
 일시 : 6월 10일(토) 오후 2시 ~ 오후 6시
 장소 : 서대문 청소년 수련관
 문의 : 남성총구역장 (010-4913-1158)
 ※ 많은 형제님들의 참여를 희망해 봅니다.
 ※ 뒷풀이장소 : 흥은나루터

◎ 6월 16일(금)은 사제성화의 날입니다.
 신부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구행사로 6월 16일(금)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 6월 16일(금)은 10시 미사가 없는 관계로
바오로 시니어 대학 학생들은 11시까지
소성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6월 20일(화) 10시 미사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5월 ~ 6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이유훈	라파엘	3-1	장보배	세라피나	6-5
조윤래	테레사	.9-4	박세향	마리아	11-3

◎ 전입 교우 환영식

일시 : 6월 25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예 루 살 렘 아 주 님 을 찬 미 하 여 라

◎ 남성 울뜨레아

일시 : 6월 18일(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 울뜨레아

일시 : 6월 27일(화) 10시 미사 후 304호

◎ 비대면 청년기도모임 <프레희(喜)>

대상 : 연희동 청년 누구나
 일시 : 5월 25일(목) ~ 10월 5일(목) 20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장소 : 온라인(청년연합회 인스타그램(@youth.yh))
 당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링크 공유 예정
 문의 : 청년회장 (010-2550-2375)

◎ 토요 문화학교(주일학교)

수강과목 : 바이올린, 통기타/우쿨렐레, 미술, 영어
 개강 : 6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수업
 문의 : 카카오톡 채널 「연희동성당문화학교」
 친구추가 후 등록 / QR코드 →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6. 4)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81	759 (36.5%)	718 (34.5%)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5월 29일 ~ 6월 4일)

송명진 일십만원 정수진 칠만원
 익 명 일십만원 익 명 오만원
 김영중 오만원 홍순규 일십만원
 익 명 이만원 이영자 오만원
 우성택 오십만원 박민선 일십만원
 박승복 오십만원 강재균 오만원
 故 신길자 카타리나 이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교 무 금 14,805,000원
 주일헌금 5,656,500원

입당 169 봉헌 217, 220, 215 성체 162, 164, 499 파견 201